



ZOOM IN

모더니즘의 부활, 안젤름 라일레

ANSELM REYLE: A MODERNIST REBIRTH

오랜 세월 답습해온 형식과 이념을 과감히 파괴할 때, 비로소 새로운 예술이 창조된다. 그것이 모더니즘 정신이다.

A new form of art: Conventional style and ideology break down and art re-invents itself. It's a new medium, a phoenix-like facelift for semi-forgotten, past art movements. It's the living spirit of modernism.

by 김민정 Kim Min-jung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예술이라 했던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술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전통 회화와 조각에는 항상 묘사의 대상이 존재했으며 오랜 세월 실제 사물과 인물이 예술의 주제였다. 그러다 20세기 초, 이런 사실주의 표현 양식을 거부한 소수 엘리트 작가들 사이에서 아수파와 입체파, 독일의 표현주의 같은 새로운 사조가 등장했다. 이때부터 예술은 서양 미술의 뿌리인 모방적·재현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났다. 붓질과 재료의 순수한 회화성을 충실히 실천한 추상미술도 이 시기에 탄생했다. 원근법과 명암법을 엄격히 따랐던 작가들 입장에서 정말 얼도당 토않은 것들이 예술이란 감투를 쓰게 되었다. 후대의 예술사학자들은 혁명파도 같은 이 시기를 모더니즘이라 명명했다.

독일 작가 안젤름 라일레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 1970년에 태어나 이제 40대 초반에 이른 젊은 작가가 100년 전 이미 한 시대를 휩쓴 모더니즘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고 그가 과거의 모더니즘 작가들을 그대로 흉내 냈다는 건 아니다. 작가의 주관과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더니즘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름의 재해석을 더했다. 그는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 등 이제는 좀 구태의연해졌다 싶은 것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캔버스 위의 페인트가 감각적인 조형으로 변모하고 현재를 반영하는 일상 사물들을 재조합했다. 뒤상이 소변기를 '생기'라 명명한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은박 포일이나 형광등 같은 싸구려 재료로 과거의 예술을 창조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가 보여준 건 건세가지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더니즘이다. ■

김민정은 (비온드)의 에디터다.

They say art is about creating something from nothing. Strictly speaking, art never starts from scratch. Traditional paintings and sculptures have always had objects to depict, and for a long time, living human beings and things have served as models. Then, in the early 20th century, a few elite artists began to defy realistic depictions. They gave birth to new trends in Europe: fauvism, cubism and expressionism.

Starting at about this time, art moved away from its roots of imitative, representational realism. Abstract art, built on simple brushstrokes and pure experimentation, was born around this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artists who steadfastly clung to perspective and shading, things that made little observable sense began to be called art. Art historians later came to call this period the era of modernism.

German artist Anselm Reyle was drawn to modernism. Why would a 40-something artist be interested in a movement that came and went a century ago? Reyle doesn't necessarily imitate the old modernists. Rather, he has inherited their spirit, a modernist view that stresses the artist's opinion and the present, and he creates his own interpretations. Reyle breathes new life into genres that may now be considered obsolete, such as abstract expressionism, pop art, op art and minimalism. Paint on the canvas takes shape, and everyday objects that reflect the present are given life. Duchamp once dubbed his toilet *Fountain*. In a different



fashion, Reyle manages to create high art with cheap materials such as aluminum foil and fluorescent lamps. Reyle doesn't take us back in time. Instead, he presents us a version of modernism that's still relevant in the 21st century. ■

Kim Min-jung is an editor for *beyond*.

1 무제, 2013 2 무제, 2012
1 Untitled, 2013 2 Untitled, 2012



안젤름 라이엘 Anselm Reyle

INTERVIEW

예술가인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나? 어머니는 예술가. 아버지는 의사였다. 어릴 때부터 예술을 접하며 자랐고, 전시회에 자주 다녔다. 어머니의 그림은 풍경화와 비정형적인 회화 스타일 중간쯤으로,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추구했다. 나의 접근 방식은 훨씬 개념적이다. 좀 더 새로우면서도 인공적인 재료에 관심이 많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에 발달했던 것들과 차별화하고 싶었던 것 같다.

Your parents were artists. How did this influence you? My mother is an artist, my father is a doctor. I grew up with art and my parents often took us to exhibitions. My mother paints in a style sandwiched between landscape and informal painting. She gravitates to earthy, natural colors. My approach is much more conceptual, and I am interested in newer, more artificial materials. Naturally, I wanted to detach myself from the traditions I saw in my childhood home.

1970년대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다. 성장 배경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주변 사물들을 작품에 적극 활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이란 나라에 분명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내 작품이 그 자체로 특별한 독일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 프랑스의 누보 레알리스트, 미국의 색면회화, 일

본의 구티이 미술 운동과 같이 다른 나라의 모더니즘과 현대 미술에도 관심이 많다.

You were born and grew up in Germany in the 20th century. How did this background influence your work? I work closely with the things around me, so in that sense, I think that Germany has certainly influenced me. In itself, however, my art couldn't be described as especially "German." I'm equally interest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the Nouveaux Réalistes from France, Color Field Painting from America and the Japanese Gutai movement.

추상미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추상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 나는 추상미술이 예술의 세계 그 자체에만 갇히지 않도록 애쓴다. 예를 들어, 보통 숨의 원도를 장식할 때 은박 포일을 사용하는데, 포일은 본래 예술 작품에 사용했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다.

What do you think makes abstract works attractive? Hard to say... In general, in order to understand abstract art, one first needs to have a willingness to embrace it.

I try to make abstract art that is less hermetic. For example, I use silver foil, which is normally used for decorating shop windows. The foil isn't a material that originates in the art world, and it has a certain something that fascinates many people—including me.

어떤 과정으로 작품의 모티프를 선택하고,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는가? 내 작품은 '발견된 오브제(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상관없이 작가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오브제 트루베(Objet trouvé)'라고도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재료를 발견하고 이것이 작품의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과정을 거쳐서 그 오브제를 강조하거나 서로 다르게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려 노력한다.

What process do you go through to choose a motif for your work and how do you decide the composition? My entire work consists of found objects. Often, a piece of material or something that I find leads me to an idea. Using the simplest and clearest process, I try to emphasize something or combine things together in an unexpected and interesting way, so I arrive at something new.

어떤 식으로 일상의 오브제들을 선택하는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늘'을 상징하는 재료와 컬러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의 수준은 매우 다르다. 마차 바퀴와 아프리카 조각상은 모두 내 작품에서 사용된 '발견된 오브제'이지만, 완전히 다른 역사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발견된 오브제'들은 일부러 눈에 나타나서 찾기보다는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 내 눈길을 끄는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해 아이디어의 단초로 삼는다.

How do you choose mundane objects as materials? The materials and colors available nowadays interest me, and represent our living present. The layers of meaning are quite different. A wagon wheel has a completely different history and meaning than an African sculpture, and both are found objects that I have used in my work. I don't go out in search of found objects. Rather, I encounter them randomly. Sometimes I come across something that fascinates me and triggers an idea.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왜 모더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1세기에 모더니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모더니즘이 흥미로운 것은 그 전형적인 이미지의 소멸이 급속히 일어났다는 점이다. 인상주의, 입체파로부터(검은 사각형)(1915)로 정점을 찍은 추상 예술에 도달하기까지 단 3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발전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What is modernism? Why are you interested in modernism? What role does modernism play in the 21st century? What interests me about modernism is the dissolution of the representative image, which happened extremely fast: from

ANSELM REYLE 안젤름 라이엘

서울에서 안젤름 라이엘의 개인전이 열린다.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국제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Anselm Reyle will have his second solo exhibition in Seoul since 2010 at Kukje Gallery until Dec. 31.

impressionism and cubism, to the abstract image and up to *Black Square* (1915)—in not even 30 years! That development was unique and it will never happen like that again.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팀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 작품이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꼭 함께 일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든 나오니까. You don't like working alone. How does working as a team help? I like working with other people. Communication is important to me and I hope that my art has the potential to trigger communication. It's a mixture, however. I get a lot of ideas when I'm alone. This need not happen in the studio. It can occur anywhere.

특별히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는가? 독일 남양주부터 세잔, 뒤상, 뤼프,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오토 브로인클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와 빅토르 바자렐리와 같은 비주류 아티스트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하고 급진적이며 동시에 공상적인 예술 세계에 끌린다.

Which artists do you admire? Various artists are important to me: German romanticists, Cézanne, Duchamp, Warhol through to Jeff Koons and Takashi Murakami. But less well-known artists like Otto Freundlich and non-mainstream artists like Victor Vasarely are also very important to me. I'm interested in forceful, radical but, at the same time, visionary positions.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국제갤러리 전시회를 위해 최근 작업한 작품이 있는가?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선별한 대형 회화와 조각,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자투리 재료와 폐기물, 한국에서 수집한 문방의 잔해인 고철을 활용해 만든 공간 설치 미술품을 전시한다. 회화는 포일로 만든 최근작 '레이지 포일'을 공개하려 한다. 이 작품은 다량의 은박 포일에 약간의 구김을 주어 루스하게 배치, 구성했다. 이것을 유색 투명한 아크릴 유리로 덮어 그 색감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또 다른 카테고리는 물감을 소화기로 뿌리거나 단순히 쏟아부어 만든 '드리핑 페인팅'이다. 형식적으로 이 작품들은 매우 심플하고 분명하다. 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해 다른 종류의 페인트와 레커가 각 모서리에서 어우러져 시키델릭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What is your current area of interest? What is your recent work for the upcoming Kukje Gallery exhibition? My exhibition at Kukje Gallery consists of large-sized paintings from two work groups, as well as a sculpture and a room installation from the remnants of trash in my studio and scrap from Korea—typical remnants of civilization. For paintings, I will show my latest foil pieces—I call them "Lazy Foils." I place silver foil loosely and generously in just a few movements, which leads to folds that make up the composition. The covering boxes are made of colored, transparent acrylic glass, which give the images their color. The other group of works are Dripping Paintings—they are made from paint that is sprayed with fire



extinguishers or simply poured. Formally, they are very clear and simple. The generous use of the material makes the different kinds of paint and lacquer merge into each other around the edges, occasionally creating psychedelic effects.

1 아프리카 근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2 크로노를 현대예술센터의 전시 3 루에, 2013
1 Exhibition at Arken Museum of Modern Art 2 Centre National d'Art Contemporain in Grenoble 3 Untitled, 2013

